

율법의 옛 틀에서 믿음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

창세기17:9-11, 갈라디아서2:16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빛진 자이오니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세밀하게 듣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하고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서 237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영적인 대헌장 즉, ‘마그나카르타’라고 말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문서로,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즉, 이 의미는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세인 율법과 지옥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대헌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그나카르타라면 와 닿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힘 약한 왕이기 때문에 귀족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인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인권이나 인간의 존중가치가 담겨있다. 한국의 논어, 맹자와 다르게 성경이 바탕이 되어있다.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복지, 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복지를 하고 왜 인간을 소중히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가? 인간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기 때문이라 한다. 왜인가? 인간이 힘이 세고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근본 뿌리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왜 존중하는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뿌리를 모른다. 그러니 죽어도 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존재이다. 지금도 영국이 모든 면에 있어 굉장히 앞선 부분이 있다. 그 기반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 영적인 ‘마그나카르타’이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선포되었다. ‘인간은 국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포되었다. 즉, 이 의미는 갈라디아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세인 율법과 지옥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대헌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그나카르타’

를 아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가 자신의 아내와 같은 성경이라고 고백했다. 갈라디아서를 확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읽으면서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써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사탄문제, 지옥문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옥문제, 사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임을 믿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가 전해진 교회들이 있던 지역은 남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 지역에 편지를 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짓 선생들이 전한 틀린 말씀에 현혹되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직접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1. 옛 틀이었던 그들의 잘 못된 신앙과 삶은 무엇이었던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믿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특히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할례당이었다. 그들은 구약 율법의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까지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주까지 하였을까?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거짓선생들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간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단은 이단으로 속이고, 성도들을 혼돈다. 당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갈라디아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믿게 된 줄 믿기를 바란다. 또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바울이 소명을 받은 후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을 길게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3) 또한 당시 갈라디아교회 안에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날,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탄이 쳐 놓은 운명, 사주, 팔자의 재앙과 저주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 지키면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 방향, 운명, 사주, 팔자의 재앙과 저주에서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다.

(4) 사탄의 울무에 매인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많은 세속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오직 믿음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틀린 복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당연한 영적인 새 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참된 하나님의 새 틀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2)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악용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3)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율법적인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율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없어진 율법, 바뀐 율법도 있다. 안식일이 주일로, 제사제도가 예배로 바뀌지 않았는가. 새 틀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성막에서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은가.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와줘야 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모습을 통해

서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이다. 안 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4)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영적인 새 틀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내 문제를 뛰어 넘어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까지도 대신해서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주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CVDIP와 갈라디아서를 적용하고자 한다.

1. 첫째는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받은 최고의 구원의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절대 Vision은 '오직 믿음'의 복음을 237나라에 증거하는 것이다. RU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신학적인 내용,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기적을 말하는지 모른다. 복음은 없고 종교통합주의로 가고 있다. 참 복음을 알려주는 RU가 필요한 것이다.
3. 다음은 Dream이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4시 되어 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 최대, 최적이 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24시 도전해야 할 절대적인 언약이 있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으니까. 특별히 램네티프 중직자들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한다.
4. 다음은 Image이다.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강단메시지와 전체메시지를 붙잡고 미래가 앞당겨 보일 때까지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Practice이다.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은 이제 날마다 복음메시지를 다시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매일 복음 듣고 연습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3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해 보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다락방부터 237복음화까지의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참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미자립으로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명해 주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치유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